

지리산 왕등재습지 '동식물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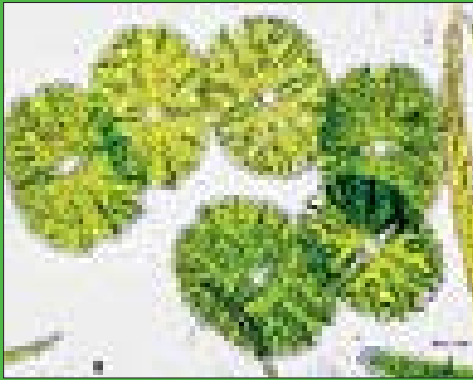
멸종위기 까막딱따구리 등 348종 희귀생물 서식 확인



〈까막딱따구리〉



〈큰땅콩물방개〉



〈훈장장구말숙〉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고산습지인 '왕등재습지'에 멸종위기종을 포함, 300종이 넘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지리산 고산습지인 왕등재습지의 동·식물상 등 13개 분야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까막딱따구리 등 348종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발 967~970m에 위치한 왕등재 습지에는 삵파나무, 참나무 등 58종의 식물과 멧돼지를 포함한 19종의 포유류, 72종의 조류를 비롯한 큰땅콩물방개 등 저서형 대형 무척추동물 39종, 물범지마름 등 담수조류 158종까지 모두 348종의 동물이 서식 중이었다. 왕등재습지가 고산 지역인데도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것은 목속 무기원소의 영양이 풍부한 데다 영양소의 생태계 내 순환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질 조사 결과 전기전도도도 낮아 깨끗하면서도 무기질의 양도 많은 편이고, 업록스

도 풍부해 영양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습지 생성연대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 추이 분석과 습지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 박정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성연대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 추이 분석과 습지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국립공원 내 고산습지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왕등재습지는 고산습지로 길이 110m·폭 2~32m, 면적 2천170㎡에 달하는 이탄(泥炭)습지다. 이탄은 낮은 온도 때문에 죽은 식물들이 미생물 분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쌓여 만들어진 토양의 층으로 이탄습지는 이탄층으로 형성된 습지를 말한다. 빗물과 2개의 유로에서 유입되는 인근 지하수를 수원(水源)으로 습지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빙하 수십년內 완전 사라진다

녹는 속도 2005~2006년새 2배 이상 빨라져

유엔환경계획 보고서 경고

전세계의 빙하들이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으며 상당수는 몇십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가 경고했다.

UNEP는 세계빙하감시기구(WGMS)의 자료를 인용, 전세계의 9개 산맥에 있는 약 30개의 빙하들을 조사한 결과 2004~2005년에 비해 2005~2006년 사이엔 녹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1980~1999년 사이 이들 빙하의 크기는 연간 평균 30cm씩 작아졌으나 2005년엔 약0.5m, 2006년엔

무려 1.5m가 줄어 1980년 이후 지금까지 11.5m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가장 심하게 녹아내린 빙하는 노르웨이의 브라이달프릭트레아 빙하로 무려 3.1m나 녹았으며 칠레의 에차우렌 노르데 빙하만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크기가 약간 늘어났다.

아침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지난 20년간 최고 기록이었던 1998년의 0.7m를 능가하는 기록이 지난 6년 중 3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수역 인구가 식수와 농수, 산업 및 발전용수로 의존하는 빙하의 수자원 이 더 이상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2일 물의 날 '워터 투어' 광주시가 '제 16회 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18일 오후 광주시 남구 덕남동 덕남정수장에서 수돗물 체험견학 프로그램인 'Water Tour'를 마련했다. 'Water Tour'는 광주시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일까지 열리며 동북수원지, 덕남정수장, 수질연구소 등을 둘러보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봄 4대 기상 이변 주의보

황·무·집·꽃

〈황사〉 〈무더위〉 〈집중호우〉 〈꽃샘추위〉

삼성지구환경연 연구소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올 봄 발생가능한 4대 기상이변으로 황(황사), 무(무더위), 집(집중호우), 꽃(꽃샘추위)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올 봄 4대 기상이변 황·무·집·꽃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2007년까지 연평균 황사발생 일수는 12.4일로, 1971년~2000년까지 평균 4.7일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무더위의 경우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4월 평균기온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86%에 해당하는 지역의 최고기온 기록이 바뀌었으며 2005년 한

해에만 57% 지역의 기록이 경신됐다. 또한 집중호우도 1998년 이후 급증했으며, 최다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지역이 전체의 62%나 됐다. 봄철의 최저기온은 경신 발생일자를 분석해 본 결과, 매달 초인 1~5일에 나타난 비율이 3월 75%, 4월 74%, 5월 61%로 나타나 꽃샘추위는 1~5일 사이에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는 고온 건조한 황사 발원지 때문에 더 강한 황사가 찾아올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상이변을 이변이로만 보지 말고 일상적인 날씨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목포 앞바다에 노랑부리저어새 첫 발견

목포자연사 박물관 목격

천연기념물 제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가 목포 앞 바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조류연구팀은 "지난 2006년 봄부터 목포시 남항 앞 바다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던 중 지난 16일 먹이를 찾고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한마리를 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연사박물관 김석이 연구사는 "목포시 남항 앞 바다가 철새들의 먹이 공급과 쉼터로 큰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조류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남항 앞바다는 도심에서



전체가 백색이며 주걱처럼 생긴 부리 끝은 황색이다.

쉽게 철새를 볼 수 있는 생태 교육장"이라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노랑부리저어새는 저어새과로 몸 전체가 백색이며 주걱처럼 생긴 부리 끝은 황색이다. /목포=이성선기자 ssee@

"물 산업 경쟁력 살려 해외 진출"

광주시 수질연구소 조영관 소장 '물의 날' 세미나

'제 16회 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가 오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광주시 수질연구소 조영관 소장은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향후 물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우리나라 상하수도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토대

로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제표준화기구가 국제상하수도표준시행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낙후된 물 산업 및 수도서비스 시장의 개혁을 통해 물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개방의 압박이 거센데 담당·무안·함평군 등의 상하수도 급수보급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남지역 대부분의 급

수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며 "읍·면 단위 지역이 취약한 만큼 막여과 기술 등을 도입해 정수 시설을 강화하고, 마을상수도 보급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광주시 수질연구소 조영관 소장이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과 정수처리 특성'을, 환경부 조 순 사무관은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방향'을, 수자원공사 김형수 팀장은 '지하수 인공함양 활용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마시는 豚티 반

Big-Event

162-528-7736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영부모와 당산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62-528-7736